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
제37권 28호(가해) 2017년 6월 4일

[목사]



<성령강림 대축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갈라디아 5.25)

1. 성령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와 인간창조,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롯하여
모든 구세사적 사건에 개입하셨다.
2. 성령은 세상의 죄를 밝히 들어내고 회개시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이끄신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 가량 늘었다.”
(사도 2.41)
3. 성령은 구원을 위해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
4.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천주성부여,
성자로 부터 발하시는 성령을 믿게 하시고,
아담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듯이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민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압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변진섭다두, 이경용 야고보,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최조이스 스텔라, 김옥 안토니오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안준환 미카엘, 박준호 & 염옥화 & 박요셉 & 이마리아, 이경영야고보, 김진엽 마리아,
	(생)손석 스테파노, 김양금 안나 & 김대니 다니엘, 안상훈 라파엘 & 안은지 마리아, 정동호 하상 바오로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에릭가정, 강찬웅, 박마오로 & 그레이스리 & 염호산나, 박완철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 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코린토1서 (1Corinthians) 12,3-7.12-13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생기 둘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찰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John) 20,19-23

영성제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의 제자인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욱 커다란 측은지심에 찬 성인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습니다.”²⁰⁾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기에 순진한 낭만주의로 폄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경탄과 경이에 열려있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애와 아름다움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배자, 소비자,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냉철함과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성인의 청빈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현실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2. 더 나아가 성경에 충실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우리가 자연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 볼 수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습니다”(지혜 13,5).

확실히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그 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마 1,20참조).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수도원 정원의 일부를 언제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놓아 두어 거기에 들꽃과 목초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러한 아름다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신 것입니다.²¹⁾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의 것으로,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입니다.

< 계속 >

20.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성인의주요전설’(LegendaMajor), VIII,6,FF1145.

21. 첼라노의 토마스,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 2’(VitaSecondadiSanFrancesco),CX XIV, 165, FF750 참조.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315	315	317
봉헌	264	264	255
성체	298	298	303
파견	317	317	315

오소서, 성령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될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 시작에 사제가 신자들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여기서 성령께 일치를 청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치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그들 부부간의 일치가 깨어집니다.(창세 3,16 참조)

교만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말이 뒤섞이는 바람에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창세 11,1-9 참조)

세상에서는 흔히 모든 것이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일치라고 여깁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일치는 이런 획일적 통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서로 잘 조화시키는 일치, 다양성 안의 일치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유리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일치입니다. 각양각색의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단과 같은 일치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복음을 선포합니다. 갈릴래아 출신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인 라틴말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의 복음이 다양한 언어로 이해됨으로써 바벨탑을 세울 때 깨진 일치가 새로운 행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초가 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은총을 선사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말입니다.(제2독서)

다양성 안의 일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 응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분열을 낳는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돌아서서 그분 뜻대로 나와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여 거두어들여야 합니다.(복음)

이렇게 성령께 응답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는 다양성 안의 일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와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갈등과 다툼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인 다양성 안의 일치를 볼 수 있게 드러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일치를 청하면서 그분의 인도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이러다가

여행지에서 엽서를 쓰고

우체국에서 부치는 게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는데 스마트폰 기능이 늘어나면서부터 엽서를 안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안부를 전하고

그 순간의 내 감정과 비슷한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대신하는데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는 것보다 참 쉽습니다.

대신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러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교회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예수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해 성심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6월4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 ◆ **첫영성체 안내**
 - 첫영성체 대상자 참고: 9일(금요일)오후 5시
 - 리허설: 6월10일(토요일) 오전10시
 - 첫영성체: 6월11일(주일) 11시 미사중
-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마감을 연장합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 격: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 6.1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 2017년 8월6일(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 ◆ **2017-18년도 한국학교 1학기 등록 접수**
 -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시 20% 할인혜택 (단SAT반 제외)
- ◆ **2016-17년도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일시: 6월 11일
 - 시상식 : 6월 18일 종업식 중
- ◆ **2016~17년도 종업식**
 - 일시: 6월 18일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강당
- ◆ **빈첸시오회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께 전달할 깨끗한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25일까지 친교장 단상 위에 박스있습니다.)
 - 매달 둘째 주일오후에 2시간 정도 쉼터에 음식을 운반하고 서빙해 주실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댄을 소유하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6월12일(둘째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장
 - 안건 : 신임회장 선출 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2017 ~ 18년도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등록: 6월 4일~7월 2일 (주일학교 재무, 교장,또는 사무실)
 - 추가 필요서류: 세례, 첫영성체, 전진 증명서
 - 등록서 작성요령: 가정당 등록 학생이 1명일 경우 1~3 page, 등록 학생이 2명일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 Check payable to: 103 SKCC
(조기등록 할인(-\$20) 혜택 있습니다 : \$100, 80,60)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 4일:김밥(\$4) 사발면 (\$ 2, 하버/카슨 봉사담당)
*주일학교 : 쇠고기 주먹밥(K,1,9학년)
- 6월 11일:카레밥 (토동 \$3)
*주일학교 : 짜장밥(4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김 명 김병태 김병학 김상기 김성원 김성택 김영덕 김 옥 김 은 김정선 김택수 박영식 박운모 박인진 박종열 박준범 서용숙 송기철 양영자 엄세종 오상준 오일순 유철희 윤석구 이미예 이병우 이주창 정인옥 조소영 지경수 최 일 최태훈 한길선례 합계:\$4,915	강순복 강인모 김 명 김병학 김상기 김영덕 김정선 박인진 서용숙 양영자 유철희 이미예 이병우 이주창 지경수 최태훈 한길선례 합계 : \$1,860
주일미사헌금 :\$2,069 주보광고 : \$240(신마르띠노)	장학금 도네이션 : \$10,000(임순 테레사)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 광효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 Clare Chung (chiaralite@gmail.com)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용서-평화의길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일시: 7월1일 (토)저녁 7시~9시,
7월2일 (주일)오후2시~5시
- 장소: 성아그네스 성당
- 신청마감: 6월29일(목)
- 문의: 하세실리아 ☎ (323)578-2230,(562)233-7163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최성자 카타리나 06/07(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찬구 요한 06/10(토) 오후6시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경 카타리나 06/10(토)오후8시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06/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털 라파엘 06/10(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태은 비비안나 06/17(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데레사 06/23(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06/19(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송미숙 미카엘라 06/17(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현주 카타리나 06/11(일)오후6시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06/09(금) 오후6시 성당2층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 베네딕도 06/09(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06/10(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윤현정 토마스 06/17 (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6/13(화)오전10시30분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단체모임	1시
-------	----

[독자마당]

인위적인 것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100% pure인 사람의 몸입니다만, 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정신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픈 원인을 열거하기조차 복잡합니다.

인체와 유사한 호르몬을 암말에게서 채취해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호르몬 대체요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곡식, 화장품, 샴푸, 헤어스프레이, 염색약, 약품, 비타민, 플라스틱 등 호르몬과 관계 맺지 않는 것이 드물 만큼 광범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뿌려놓은 가라지라고나 할까요? 미국에는 식품과 의약품을 철저히 통제하는 FDA라는 기구가 있어서 Made in USA의 표시는 품질보장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가짜가 행세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신용제일주의와 법 준수에 따라 정직하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호르몬 과잉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타인종 여성보다 한인여성들에게서 유방암증가율이 23.3 %나 높다고 합니다. 타인종 여성들은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독 한인 여성한테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FDA의 지침을 잘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FDA에서 2002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9년간의 시험검증이 나오기도 전에 5년 만에 그것도 6억 2천5백 달러라는 투자손실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90년대 회춘의 묘약, 불로초라는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의 여성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서 암 증가율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자 호르몬 대체요법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약을 끊으면서 구토증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여성과 골다공증을 앓으면서도 친구가 암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호르몬요법을 거부한 채 운동으로 자신을 돌보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목격했던 사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영양제로 표기하면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양제가 홍수를 이룹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한 물질을 넣어주면 생체리듬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에 부작용이 따르는 인체는 가짜를 싫어합니다. 자연과 어울릴 때 행복해합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태양과 바람,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그리워하십시오. 순리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을 따르고 노화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리입니다. 순리는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프란치스카 / 토렌스 백삼위 성당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성전에 비치하는 것은 몰라도 성수를 가정에 두는 것은 웬지 기복적인 느낌이 듭니다.

☞ 성수란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제가 축성한 물입니다. 물은 크게 성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수로서의 물(시편 104, 10)과 죽음과 단죄로서의 물(창세기 7장), 그리고 정화수로서의 물로 구분되지요. 물론 거주지나 사람의 축복을 위한 용도로도 쓰이고 구마를 위한 예식에서 사용합니다. 즉 영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육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 쓰이는 만큼 성수를 뿌리는 행위에는 정화와 축복의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려는 사물에서 모든 악의 흔적을 제거하고 선업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십자 성호를 그을 때 성수를 사용하여 악에서의 해방과 은총을 기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수를 이마에 찍거나 뿌리는 이유는 신자들에게 세례의 기억을 떠올려서 지속적인 정화와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재생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여 이미 받은 '은총의 생명을 주는 세례를 새롭게' 해 주기를 청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수를 마시면 아픈 곳이 낫는다는 등의 이유라면 기복적이지만 정화와 축복이라는 성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사용한다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구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복적이라는 생각을 털어내기 바랍니다.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성체 조배란?

6월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기로 교회가 정한 달로서 예수성심성월이라고 합니다. 성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리신(요한 19,34 참조)심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오신 육화의 신비와 수난과 죽음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체 조배란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으로 바치는 신심 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감실(龕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수난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흠송하는 가운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체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그렇다면 감실은 무엇입니까? 감실이란 성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감실 안에는 성체를 담은 성합이 있으며 그 밑에는 하얀색 성체포가 깔려 있습니다. 감실은 주로 성당의 제대 중앙이나 제대 옆에 있으며, 성당 안에 단 하나의 감실만을 둡니다. 감실 앞에는 성체를 모셔두었음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의 작은 램프(성체등)가 켜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감실 앞을 지나갈 때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깊은 절을 합니다. 사제가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이유는 첫째, 성당에 올 수 없는 '병자'를 방문하여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알폰소는 성체조배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신심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Quiz본문을 참고하여 아래빈칸을 채우세요.

	성		성	포		성		미	
	가					성		성	
제				경		체			
			엄						실
	존			합		배		사	

5월28일 자 정답:

- ①-⑧, ②-⑩, ③-⑥,
④-⑦, ⑤-⑨

「성경 속 동식물」 22 축복의 근원이 된 밀

성경에 밀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창세기인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자기 천막에 초대하여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어 손님을 접대한 후 자식을 얻는다. 그래서 밀은 축복의 근원이 된다.(창세 18,1-15 참조)

밀은 중요한 농작물(신명 8,8)이며, 하느님 제단에 드리는 제물용 빵을 만드는 재료였고(탈출 29,2) 건축재 비용을 지불하는 수단이기도 했다.(1열왕 5,25)

신약 성경에서는 밀을 신앙에 비유(요한 12,24; 마태 13,24-30 참조) 한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전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O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LJ)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